

## 美 F-22 스텔스전투기 한국 출격...잇단 전략무기 과시

등록 2013.04.01 10:58:18 | 수정 2016.12.28 07:14:04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전개한 F-22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해 날아다니는 새보다 훨씬 작게 포착된다.

전폭 13.6m, 전장 18.9m, 전고 5.1m, 중량 1만9700kg의 육중한 동체에도 최대속력 마하 2.5 이상으로 작전행동반경은 2177km에 달한다.

스텔스기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무장능력도 F-22에는 예외다. AIM-120(암람) 공대공미사일 6발, 450kg급 공대지 정밀유도 무기 2발, AIM-9(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2발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공대지미사일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능 APG-77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250km 떨어진 적의 위치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미니 AWACS(조기경보기)'로 평가된다. 적기를 먼저 발견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현재 190여대의 F-22를 실전배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으로의 수출은 불허하고 있다.

F-22 전투기는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출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한미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을 위해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샤이엔(6900t급), B-2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연이어 한국에 전개했다.

이번 F-22의 훈련 참여도 이러한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을 이행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초 미군은 2일 F-22 전투기를 한국 언론에 공개하려고 계획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잇단 전략무기 공개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ohj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